

빛이 널리 비춘다는 광화문



검정색 바탕에 光化門(광화문) 글자는 동판 위 금박을 입혔다_ 2023.10.15



서울 광화문 현판의 光(광)과 化(화) 사이에 세로로 금이 가 있다_ 출처: 2022.6.9/뉴스1

2023년 10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입구에 모인 수백 명의 시민이 환호했다. 광화문 현판을 가지고 있던 흰색 천이 걷혀져 검정 바탕에 금색으로 '光化門'이라고 쓰인 새 현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복원된 광화문 월대(月臺·궁궐 주요 건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티보다 높게 쌓은 단)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광화문이 일제가 훼손하기 전의 모습을 약 100년 만에 되찾은 것이다.

2022년 6월 광화문 현판이 금이 가 있기에 수리하려는 과정에서, 2017년 문화재 제자리찾기 해문 대표가 미국의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흰색 바탕의 검정 글씨로 된 현재의 현판보다 더 오래된 광화문 사진(현판이 검정 바탕에 금박 글씨로 되어 있음)을 찾아낸 것을,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지게 되었다. 게다가 '경복궁 영건 일기'에서 광화문 현판이 '黑質金字'(흑질 금자: 검정 바탕에 금색 글자)라는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현판의 옛 모습 복원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마침내 올해 10월에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빛이 널리 비춘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으로 얼굴이다. 건물의 명칭인 '광화(光化)'는 '빛이 널리 비춘다'라는 뜻으로, 건립 당시에는 정문(正門) 혹은 오문(午門)으로 불리다가 1425년(세종7)에 이르러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光化門(광화문)'이라 명명되었다.

'광화(光化)'라는 글에는 '성군(聖君)되신 임금의 덕이 태양의 빛과 같이 널리 비추어 백성들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듯하다. 더 나아가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한 주역들임을 감안하면, '광화(光化)'는 고조선의 건국이념과 맞닿아 있음에 분명하다. 건국이념에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려 교화시킨다는 재세이화(在世理化), 도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도여치(以道與治)와 함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광명이세(光明理世)가 포함된다.

금운 시대가 열린다

10월 15일은 인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아바젯돈 전쟁에서 승리하신 날이며 산전초목이 춤추며 경배하던 날이다. 승리자 하나님은 구구팔십

일 금운(金運)으로 오셨다. 그 이전에 육구오십사수운 최제우 선생과 칠구육십삼화운 강증산 선생 그리고 팔구칠십이 목운 박태선 영모님으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계보는 하도낙서(河圖洛書)를 근간으로 하는 『육도삼략 운행도』에서 구구법(九九法)에 의거하며, 마지막 '九(구) 곱하기 九(구)는 八十一(팔십일)'에 해당하는 81궁(首) 금운 조화성님이다.

어두운 죄악 세상으로 비유되는 검정 바탕에 광화문의 글자가 황금빛으로 발하는 것은, 금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다. 금운이 하시는 역사는 사람을 전부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이다. 성경에 기록된 바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며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감오이슬로 중생들을 성불 즉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다.

광명개천(光明開天)

앞으로 인류와 만물이 승리자 구세주에 발하는 빛으로 살게 된다. 이것이 빛으로 하늘나라 천국의 새세상을 여는 광명개천(光明開天)이다. 이와 관련된 경전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다." (이사야 60장 1절)

"열방은 네 빛으로 행하고 열왕은 너의 비치는 광명에 행하리라." (이사야 60:3)

"낮에 해가 다시 네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이 네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이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게 영광이 되리니" (사 60:19-21)

"그 성은 해와 달의 빛이 쓸 일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등불이 됨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오는지라 거기는 항상 낮이요 밤이 없도다." (묵시록 21장 22-24절)

"아미타불 대 광명을 수 놓아서 사방세계[十方世界]를 다 비추니 수많은 하늘과 땅과 수많은 해와 달 등이 빛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부처의 광명만이 더욱 드러나기" (불경: 수능엄경 4권 28쪽)

"낮이 바뀌어 밤이 되어서 달빛이 없을 지라도 광채가 지극하여 대낮과 같이 밝으니 달이 없음을 희롱하는 듯이 밝도다." (격양유록: 래패예언)*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69> "이기적인 영은 영생할 수 없다"

여러분들,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나라'의 의식이 아니요, 바로 희생의 영, 양심의 영, 하나님의 영인 것이다. 양심의 영이 좌정해야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영은 영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귀의 영인 까닭이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영, 영광 받기를 좋아하는 영,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영, 이러한 영은 멸망의 영인 마귀의 영이므로 영생을 얻으려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항상 희생적으로 또 봉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70> "생명자는 생명의 물질이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구세주를 만나게 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세주와 더불어 예배를 보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웃어 봐요.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 그 피 속에서 생명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어느 과학자가 말한 것이 아니고 어느 의학박사가 말한 것도 아니고

오직 구세주가 처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생명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소의 핵 속에 중성자가 있는데 그 중성자와 동일체입니다. 생명자라는 것은 생명의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자의 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에 안 걸리고 생명자의 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라

자공문왕 유일언어가이종신행지자 호이호자왈 기서호인저 기소불욕을 물 시어인이나라(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논어, 위령공 제23장-
자공(子貢)이 물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했다. "바로 서(恕)일 것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서(恕)라는 것은 남을 용서하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곧 인덕(人德)을 베푸는 것이다. 언제나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라.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날 때마다 그들의 가슴에 '나는 존중받고 싶다고 쓰여진 목걸이를 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한다.'는 말로 더욱 유명하다.

니콜레는 '나는 나의 윤리강령에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정직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정당하려는 나의 욕구 때문만은 아니며 내 잠재의식 속에 정직한 생각을 주입해서 이 중요한 특성을 내 성격에 포함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부당한 행동을 한 사람을 용서하겠다. 왜냐하면 남을 용서해주면 내 자신의 성격이 강화되고 잠재의식으로부터 내 자신의 단점을 씻어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행동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통상적인 의미로서의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고 관대하고 정중할 것이다.'라고 적어놓고 평생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가르침은 종교 또는 윤리적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리더십 사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여성인 우수 판 메사원에게 핑크 캐딜락을 선물하는 것으로 유명한 메리케이 화장품회사의 회장 메리 케이 에쉬는 "나는 직원들을 만

난 때마다 그들의 가슴에 "나는 존중받고 싶다고 쓰여진 목걸이를 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한다."는 말로 더욱 유명하다.
니콜레는 '나는 나의 윤리강령에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정직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정당하려는 나의 욕구 때문만은 아니며 내 잠재의식 속에 정직한 생각을 주입해서 이 중요한 특성을 내 성격에 포함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부당한 행동을 한 사람을 용서하겠다. 왜냐하면 남을 용서해주면 내 자신의 성격이 강화되고 잠재의식으로부터 내 자신의 단점을 씻어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행동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통상적인 의미로서의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고 관대하고 정중할 것이다.'라고 적어놓고 평생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람의 뉘뉘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이기적(利己的)인 사람인지 이타적(利他的)인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수양이 된 사람들에게서는 그 품격이 자연스레 흘러져 나온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면서 존경심이 절로 나온다. 존중받기를 원하는가? 지금 당장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라.*



사회/이승우

꽃다발 증정: 이철오
영상물: '승리자의 발자취를 찾아서' 진화재단 석선희



화관무: 어정희, 김선애, 김경애, 특별출연 신순이



라준경의 테마가 있는 노래: 난 할 수 있어



김원찬의 하모니카 연주: 1. 얼굴, 2. 도나도나



▲ 무궁화합창단: '백성들이 일어나라' 지휘/박철수, 반주/박인숙

▶ 무궁화관현악단: '이기자'(합창), '승리제단'(관송) 지휘/김성우



'23.10.15

경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강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